



후마니타스 특강 _ 중간 보고서

3월 12일 _ 타투이스트의 강연

2023100409 무역학과 엄해솔

첫 수업과 타투의 결합,

3월 12일, 정정기간이 지난 후 진행된 첫 수업이었다. 다양한 사람들의 강연이 진행된다는 점만 기억한 채 강의실로 향했다. 앞 수업이 끝난 후 분주하게 청운관에 도착해 강의실에 앉게 되었다. 타투이스트의 강연이 진행된다는 옆 학우의 말을 듣게 되었고 오늘의 강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었다.

첫 수업의 영향일까,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타투에 대한 나의 흥미 때문일까, 유독 집중이 잘 되었던 강의였다. 강연자는 타투이스트이기에 당연히 힙한 용모일 것이라 예측한 것과 다르게 단정한 모습이었던 점 또한 흥미를 자극했다.

타투를 하게 되었다,

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등학생 때부터 타투에 관심이 있었다. SNS에서 타투를 하고 있는 혹은 타투가 된 피부가 게시된 게시물을 접하면 1,2시간을 넘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채 화면을 보았다. 나만의 기호를 다룬 어떠한 곳이 아닌 나의 몸에 새긴다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꼭 타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하나뿐인 오빠가 타투를 하고 온 날 집안이 난리가 났다. 보수적이던 부모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고 그 이후로 나는 타투를 하고 싶다는 말을 부모님 앞에서 전혀 할 수 없었다.

그래서, 그냥 무작정해버렸다. 그 와중에 부모님의 눈치가 보이기는 했기에 손가락에 아주 작은 크기로 했다. 안 들킬 것이라 생각했다. 하지만 들켜버렸다. 예상과 다르게 부모님은 화를 내시지 않았다. 그 이후로 결심했다. '아, 하나 더 해야지'

문신사법에 대해 알게되다!

타투이스트의 강연을 처음 듣게 되었다. 추가로 타투 하나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강연자의 말을 귀담아들었다. 평소에 듣는 강의이나 강연과 달랐다. 강연자부터 학자, 교수, 정치인, 방송인이 아닌, 주위에서 잘 접할 수 없었던 직업이었기 때문이다. 진솔한 강의였다. 그리고 이를 통해 문신사법의 연혁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. 문신사 법이라는 법률이 통과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, 구체적으로 65번이었고 박주민 의원의 간식 공세, 김남일 의원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.

내가 원하는 연대란,

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.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눔과 배려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이다. 그리고 대학 생활 4년간, 학생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소속감을 많이 느끼곤 했다. 강의에선 연대에 몸 담아 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. 그간 느꼈던 소속감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타 단과대학, 행정실, 학교의 기관, 다양한 기획사 등에서 받았던 도움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연대가 생각났다. 나 또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.

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관심이 가는 연대 단체에 몸담아 보는 것,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. 내가 원하는 연대는 무엇일까? 청소년과 환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강의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된 연대를 찾아보고 있다. 한 사람의 강연이 나의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영향이 큰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다. 앞으로 정말 연대에 몸담아 보며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고 싶다. 3월 12일 시작된 이 연대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과 과정이 궁금해진다. 3월 19일의 결심, 이제는 실행을 해야겠다.